

# 물한계곡엔 얼음장...들녘엔 벌써 봄소식

## 백두대간 속으로

(9)

### 대덕산→삼도봉

소사고개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인다. 덕유상봉산(1264m)을 급하게 내려선 백두대간이 이곳에서부터 서서히 몸을 들어올려 대덕산(1290m)을 향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서로 등을 굽어주며 사는 이 고개는, 경남 거창군 고재면 봉계리와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를 연결하는 곳으로, 1천 미터가 넘는 산 사이에 끼여 있지만 비탈이 아찔스럽지 않은 탓에 제법 너른 들녘을 끼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사마을과 같은 네댓 개의 작은 마을이 겨울 산새와 도토리거름 볼을 키워가고 있다.



○대덕산의 역새를 넘어 보아는 덕유상봉산. 백두대간은 덕유상봉산을 지나 대덕산을 넘었다가 덕산에서 잠시 인 후 민주지산의 삼도봉을 향한다.

이름 그대로 대덕산(大德山)은 덕망이 높은 고승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동그스름하고 투실한 두 개의 봉우리가 남북으로 이어진 군더더기없는 모양새는, 하늘금 어디고 모난 구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원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호락호락한 산이 아니다. 역시 주름이 험잡이다. 저기다 실어 올라서면 다시 내려서야 하는 일을 맞바리고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세 시간(겨울인 경우)을 다릿뿔을 뒀던 땀은 남쪽 봉우리 위에 올라 실 수 있다. 이 봉우리가 바로 초점산(1248.7m) 정상이다. 먼 눈으로 보면 싸잡아 대덕산의 한 봉우리 같지만 어엿한 제 이름을 가진 산이다. 또한 이 봉우리는 전라북도의 무주, 경상북도의 김천, 경상남도의 거창을 가른다 하여 삼도봉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가야 할 민주지산의 삼도봉과 이름이 같다. 특히 이 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은 동쪽을 향해 우람한 가지 하나를 뻗어 내리는데, 수도산과 가야산의 줄기가 바로 그것이다. 백두대간이 이 땅의 동맥임이 이로써 또 한번 증명된다.

초점산에서 대덕산 정상까지는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니다. 가파른 내리막으로 푹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기를 몇 번 반복하면, 역새를 무성 사이로 조목조목이 내려주는 편안한 오솔길 끝에 경쾌한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사방 어디고 거칠 것이 없다. 좌우로 무주군 무풍면과 김천시 대덕면의 작은 마을이 골골이 들어찬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이 마치 얼음물에 안긴 절벽의 모습과 같아서 새삼스럽게 산의 언덕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산의 왼쪽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무풍천과 오른쪽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갑천은 저마다 금강과 낙동강을 살피우며

수많은 생명을 거둔다. 대덕산에서 덕산재를 향하는 백두대간은 한참 동안 허리를 낮춘다. 이런 경우, 산길을 걷는 사람은 오히려 실망스럽다. 내리막의 편안함보다는 오르막의 괴로움을 먼저 예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땀이 좋아지는 인간들의 일약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상에서 한 마장쯤 내려선 곳에서 땀을 발견하고는, 혼자만의 비밀 장소에 들어온 아이미냥 다시 달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땀은 거의 말라 있다. 그래도 땀을 흘려주며 오솔길 넘어선 조락대 푸른 일이 땀을 대신하여 갈증을 달래주니, 이 또한 산에서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한 줄기 사한 바람이 날린한 포장으로 위를 무리지어 건넌고 있다. 어느새 덕산재(640m)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과 전북 무주군 무풍면을 이어주는 백두대간의 오래된 고갯길로, 『산중동곡여지승람』에도 부장현(釜項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항현의 오랜 내력을 일러주는 또 다른 흔적은 고갯마루 직전의 산성 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벽돌 맞장을 포개놓은 정도의 막돌로 쌓은 산성 터는, 예나 지금이나 금 그어놓고 싸우기 좋아 하는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발길을 조금은 무겁게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부항령(680m)은 고개로서의

## 겨울 민주지산 '무소유' 설법 하는듯 석기봉 삼두마애불 볼수록 친근감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대신 옛고개 바로 밑으로 삼도봉터널(618m)이라는 이름의 굴이 돌려 경북 김천시 부항면과 전북 무주군 무풍면을 이어주고 있다. 겨울의 그드머린 2월의 산행은 산의 체(體)를 여실히 보게 한다. 민주지산(1241.7m)의 동쪽 끝 봉우리인 삼도봉을 향하는 백두대간은 더욱 그렇다. 주름이 깊어 벌이 들지 않는 쪽의 기슭에만 남아 있는 하얀 눈은 산의 근육을 선명히 하고, 알 필근 나무들의 허허로운 모습은 오히려 꼭 찬 느낌을 준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는 역설의 미학, 바로 겨울 산의 아름다움이다.

이렇듯 겨울 산은, 현상에 대한 집착이나 일체의 고정 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언의 설법을 배틀고 있다. 그러나 여름 산에서는 이런 느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일까. 그래서 삼과 죽음이 맞닿은 경계에 가 본 사람일수록 눈빛이 깊고 그윽해지는 모양이다.

드디어 삼도봉(1177m)이다. 말 그대로 경북(김천)과 전북(무주) 그리고 충북(영동)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있다. 이른바 '삼도봉 대화합 기념탑'이라는 게 그것인데, 산의 경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흉물스러워 보일 정도다.

사실 도가 만나는 경계에 가 보면, 이 숲이라는 말 말고는 불화나 화합이니 하는 말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맑고바람이라고까지 말하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감히 단언하건대, 정치인들의 농간이다. 지역 감정을 부추겨 자신들의 잇속만 챙겨놓고는 짐작 아닌 체하며 산국대까지 파헤치는 여지를 부리는 것이다. 돌 조각을 세워서 화합한 된다면 삼천리 방방곡곡 봉긋이 솟은 데라면 어디고 세워도 좋다. 그러나 그게 그러다고 될 일인 사. 실로 해답은 간단하다. 애꿎은 산 꼭 아 돌덩이 세워 화합 운운할 일을 자지르지만 않으면 된다.



○민주지산 석기봉 아래에 나부신 삼두마애불.

그대로 삼도봉에서는, 괴상한 조형물을 보며 느낀 실망감을 몇배로 보상받을 길이 있다. 백두대간 길에서 잠시 벗어나 북서쪽으로 한 시간 남짓 걸어가면 민주지산의 석기봉 남서쪽 기슭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기봉 남서쪽 기슭에 있는 이 부처님은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불두가 셋이어서

이름도 삼두마애불인데, 조각 수법이 소박하여 예술상 따위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질박한 맛이 오히려 친근감을 더해주는 마애불이다. 편단우면에 반가부좌를 한 모습 위로 불두 셋이 탑을 쌓은 것처럼 크기를 줄이며 하늘로 솟아올라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수많은 중생들의 비원을 다 들어주기 위한 천백백화신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부신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한다.

또한 삼두마애불 아래에는 사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숨이 턱에 닿을 듯 산에 오른 사람들이 숨을 고루면서 갈증을 달래게 해 준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고 한방울씩 고이는 물을 조심스레 퍼담아야 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담다 보면, 이것이 바로 불유(佛乳)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삼도봉에서의 하산 길은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물한계곡'을 택했지만 물은 보이지 않았다. 계곡이 온통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음장 아래로 계곡물은 들들들 경쾌한 소리를 내며 힘없이 흐르고 있었고, 물관리를 벗어난 물네 부근에서는 벌써 버들가지가 꽃을 피워 울리며 봄마중 채비를 하고 있었다.

글=윤재희 기자 사진=순재식(사진작가)

## 봉축연등·범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범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범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 특징

- 1 일체형으로서 짐작 불량이 없습니다.
-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 3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끝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신성기획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근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근행 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퍼져서 혈관을 크게 나누는 동맥, 정맥, 오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오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성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안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이산화탄소)이 우물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핵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는 동맥, 정맥, 오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오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성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안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이산화탄소)이 우물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 건강신발 근행의 특징
-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 3 운동부족으로 인한 정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근행대표 박동진 합장